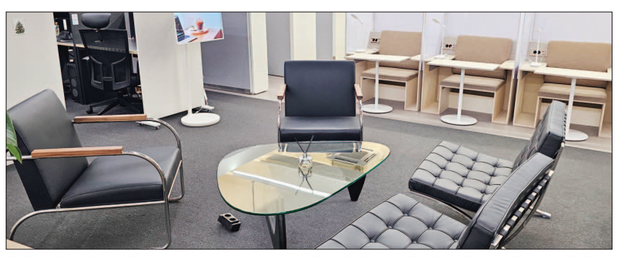
진화하는 공유오피스… 똑똑한 '창업 허브' 열풍

"공유오피스에서 회식이나 콘서트도 함께 하고, 협업과 정보공유 다 같이해요." 공유오피스가 단순한 사무공간 임대를 넘어 '스타트업 허브'로 각광받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유연한 근무환경과 창업 생태계의 다변화, 임대료 부담 등 다양한 요인이 맞물리며 공유오피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다.

3년 새 7곳→30곳…월 30만원대 저렴한 임대료
다양한 공간 활용에 쇼룸·스튜디오·택배 서비스
커뮤니티 '한몫'…유휴공간 리모델링 도심 활기



커뮤니티 존과 사무실, 회의실, 카페·스낵바 등을 제공하는 광주 서구 동천동의 한 공유오피스.

입주사 관계자들이 공유오피스 카페에서 간식을 먹으며 휴식을 취하고 있다.

11일 방문한 광주 서구 동천동의 한 공유오피스 4층 라운지.

이곳에서는 삼삼오오 모여 회의를 이어가는 스타트업 직원들, 커피머신에서 뽑은 시원한 아메리카노를 음미하는 프리랜서, 메신저와 노트북 화면을 번갈아 보며 아이디어를 나누는 예비 창업자들이 한데 어우러져 있었다.

간식과 스낵, 각종 음료가 상시 준비돼 있어 잠깐의 휴식도 일상처럼 자연스러워 보였다.

업계에 따르면 3년 전 7곳에 불과했던 광주지역 공유오피스는 현재 30여곳까지 늘어나 성업 중이다.

공유오피스가 매력적인 가장 큰 이유는 '가격 경쟁력'이다. 시내 기준 20평(약 66㎡) 규모의 독립 오피스로 창업을 시작하려면 대개 월 40만~100만원 수준의 임대료가 소요된다. 여기에 각종 보증금과 관리비까지 고려하면 부담이 만만찮다.

반면 공유오피스는 보증금이나 관리비 부담 없이 월 30만원대에 입주할 수 있는 구조다. 게다가 단기(시간·일·주 단위) 사용도 가능해 커피값 정도의 부담만으로 더 체계적인 업무환경을 이용하려는 1인 창업자·취업준비생·프리랜서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입주사 직원들은 업무시간 내내 라운지, 미팅룸, 개별좌석 등 다양한 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고성능 프린터·스캐너, 카페 못지않은 인테리어와 무료 스낵바, 넓은 회의실, 개별전화 부스, 최신 IT기기까지 완비돼 있다. 일부 공유오피스는 쇼룸과 촬영·방송 스튜디오, 택배 서비스도 제공한다.

커뮤니티와 컬래버 효과가 커진 것도 공유오피스 열풍의 한 축이다.

각 분야의 창업자, 프리랜서, 디자이너 등 다양한 인물들이 한 공간에 모여 자연스럽게 생각과 정보를 교류한다. 정기적으로 점심·저녁 모임, 회식, 콘서트, 세미나, 워크숍 등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 조건 또한 크게 완화됐다. 사업자 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공간을 대여할 수 있어 취업 준비생, 스터디 그룹, 각종 소모임, 1인 창업자, 장비가 필요한 설계사나 그래픽 디자이너까지 이용 범위가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다. 카페에서 공부하던 이른바 '카공족'도 쾌적하고 조용한 이곳을 선호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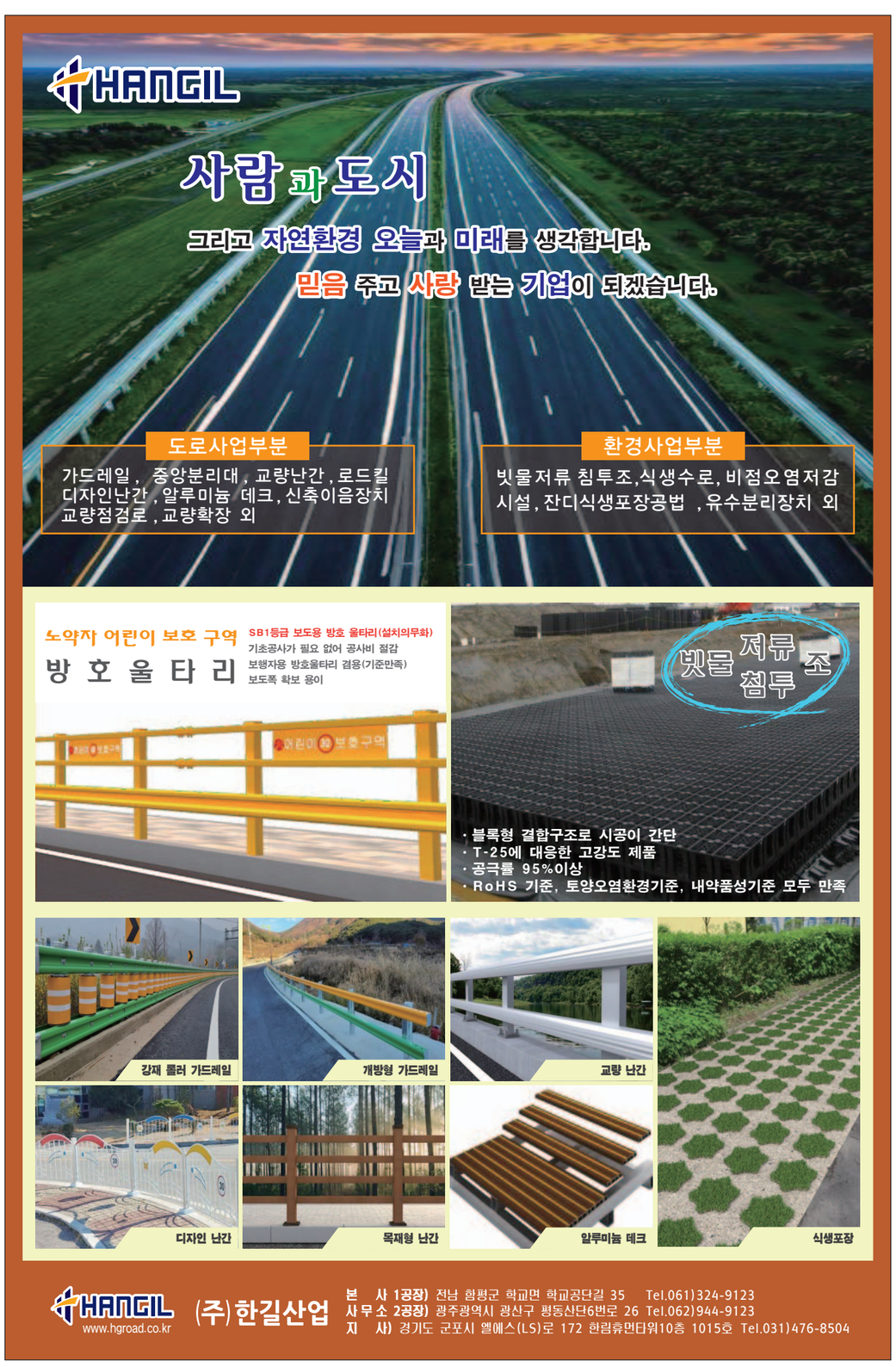
공유오피스 활성화는 지역 부동산 시장 구조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존 독서실, 스터디 카페, 심지어 장기간 방치된 공실 건물까지 수요에 맞게 리모델링하며 도시 내 유휴공간을 효과적으로 재활용하게 된 것이다. 시내 주요 상권과 교통 요지 곳곳에 공유오피스가 잇따라 문을 열고 있는 모양새다.

이처럼 광주 공유오피스는 공간의 단순 임대가 아닌, 지역 창업 생태계 자체를 혁신하는 플랫폼으로 위상을 빠르게 높이고 있다. 낮은 진입장벽과 수준 높은 업무환경, 활발한 커뮤니티가 창업자와 프리랜서, 청년들에게 도전과 실험의 기회를 열어주며,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의 신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백상훈 오피스봄 대표는 "과거 공유오피스는 소호 사무실이라고 불리는 고시원 같은 느낌이었다"며 "지금은 커뮤니티 형식으로 다양한 업종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협업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3년 전 이 공간을 만들었을 때부터 입주해 함께 해오는 분들도 많고, 인터넷쇼핑몰 대표와 마케팅 회사 대표처럼 함께 협업하는 사례도 많이 있다"며 "저렴한 비용과 업무 환경으로 창업할 때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엄재용 인턴기자 djawodyd0316@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광주은행, SK스토아 제휴 적금 출시

최고 연 3.00% 금리 12만원 쿠폰…1만좌 한정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SK스토아(대표이사 양맹석)와 제휴를 통해 6개월간 적금만 들어도 최대 12만 원 상당의 쿠폰을 받을 수 있는 'SK스토아Wa함께적금'을 10월 31일까지 1만좌 한정 판매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상품의 가장 큰 매력은 이자 뿐 아니라 생활에 바로 쓸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매월 5만 원 이상 납입 시 매월 SK스토아 적립금 2000원과 8000원 할인 쿠폰을 제공받을 수 있고, 만기땐 6만 원 상당의 쿠폰팩을 추가로 받는 등 총 12만 원 상당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만 14세 이상 실명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1인 1계좌로 가입 가능한 6개월제 정기적금 상품이다. 월 납입한도는 최대 50만 원이며,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 채널(광주와뱅크, 모바일웹뱅킹)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기본금리는 정액적립식 기준 연 2.60%(자유적립식 연 2.40%)이며, 우대금리 요건 충족 시 최고 연 3.00%(자유적립식 연 2.80%)까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우대금리 조건은 마케팅 수신 동의 시 연 0.20%p, 최근 3개월 내 당행 예·적금 신규 및 보유 이력이 없는 경우 연 0.20%p 등 최대 연 0.40%p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11일 기준)

영업점 방문 없이 광주와뱅크와 모바일 웹뱅킹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으며, 상품 관련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광주은행 홈페이지(www.kjbank.com), 고객센터(1600-4000)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광주공장 화재사고 수습을 위해 노사 합의를 마친 금호타이어가 올해 임금교섭에 돌입했다.

금호타이어 노사 임금협상 돌입

광주공장 화재사고 수습을 위해 노사 합의를 마친 금호타이어(대표 정일택)가 올해 임금교섭에 돌입했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11일 '2025년 단체교섭' 상견례를 갖고 본격 교섭을 시작했다.

상견례에는 정일택 대표이사 사장과 박래필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수석부지부장을 비롯해 사측 대표위원인 김명선 생산기술총괄 부사장, 노조 측 황용필 대표지회장 등 16명이 참석했다.

정일택 대표이사는 "사원 모두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회사, 다시 한 번 일어서는 금호타이어를 만들어 가기를 희망한다"며 "이번 교섭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측 대표위원인 김명선 생산기술총괄 부사장은 "전무후무한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는 금호타이어는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회사의 생존과 미래는 우리의 선택과 실행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황용필 대표지회장은 "이번 단체교섭은 노사간 성실하고 속도감 있게 됐으면 한다"면서 "회사의 큰 결단이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금호타이어는 지난 5월 발생한 광주공장 화재사고 노사간 협의를 통해 광주공장 재건 합의안을 발표했다.

구성원의 고용보장을 전제로 올해 내 광주1공장 가동, 함평신공장 생산시설 건설, 광주공장 부지 매각 후 증설 등을 골자로 한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한전KPS, 대국민 퀴즈 이벤트
22일까지 공공데이터 활용 제고

한전KPS는 오는 22일까지 공공데이터 활용 제고를 위한 대국민 퀴즈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벤트 참여 희망자는 한전KPS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 △인스타그램(www.instagram.com/kpstoryroom) △페이스북(www.facebook.com/KPStoryroom) 중 한 곳에 접속해 큐알(QR) 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한전KPS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공공데이터를 발굴하고 이를 공공데이터 포털에 개방하고 있다.

이번 퀴즈 이벤트는 이같이 개방된 공공데이터의 유용성을 알리고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벤트 참가자 중 퀴즈 만점자 중 30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모바일 기프티콘을 상품으로 제공한다.

한전KPS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 창구를 넓히는 한편, 특히 전력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공기업이자 국내외 발·송전 설비 정비 분야 선도 회사로서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국민 공감대 형성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